

<http://dx.doi.org/10.17703/JCCT.2018.4.2.27>

JCCT 2018-5-4

## 펀드투자자의 금융역량 :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 Financial Capability of Fund Consumers focused on married women

김영민

Young-Min Kim

**요약** 본 연구는 성별 및 결혼여부에 따라 펀드투자자를 기혼여성, 기혼남성, 미혼여성, 미혼남성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금융역량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혼여성은 기혼남성, 미혼여성, 미혼남성보다 평균적으로 펀드용어 숙지, 펀드 및 일반금융 지식이 낮았다. 둘째, 기혼여성과 미혼그룹(여성 및 남성)의 평균 투자기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투자실력평가에서도 기혼여성이 남성(기혼남성과 미혼남성)과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미혼여성보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기혼여성의 펀드수익률이 가장 낮았으며, 미혼여성과는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기혼남성과 미혼남성)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금융역량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기혼여성, 금융역량,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동

**Abstract** Employing financial knowledge, financial attitude, and financial action as the proxy for financial capability, we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ny mean-difference by gender and marriage.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rried women have the lowest financial knowledge among four groups especially in general financial knowledge. Second, there is the mean-difference between married women and the other groups in investment horizon and self-assessment for investment ability. Third, the fund performance of married women is the lowest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s. The findings imply that the financial capability of married women is the lowest among four groups.

**Key words** : married women, financial capability, financial knowledge, financial attitude, financial action

##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 및 행동 등을 포함하여 금융의사결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1-2] 많은 사회경제학적 요인 중에서 성별(gender) 및 결혼유무는 특히 근로형태(정규직) 및 노동시간 등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임금소득, 부,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성별 및 결혼여부를 별개의 변수로 사용하여 투자에 대한 위험성향, 자산배분 등에 영

\*정회원,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지역경제전공  
접수일: 2018년 2월 21일, 수정완료일: 2018년 3월 21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6일

Received: February 21, 2018 / Revised: March 21, 2018

Accepted: April 6, 2018

\*Corresponding Author: ymkim1@kangwon.ac.kr

Division of Global Human Resources(Regional Economics Maj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에 대해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3-4]

이에 본 연구는 성별 및 결혼여부에 따라 펀드투자자를 4개 그룹(기혼여성, 기혼남성, 미혼여성, 미혼남성)으로 나누고 이들의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동결과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금융역량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데이터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 II. 데이터

데이터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2016년 펀드투자자조사를 이용한다. 펀드투자자조사는 가계의 금융거래를 직접 결정하는 만 25세~64세의 성인 남녀 2,530명(서울 및 6대 광역시, 경기지역 신도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표본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의 층(strata)을 구성하고 각 층에서 인구에 비례하여 랜덤 추출하였으며, 전체 표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미만이다.[5]

본 연구에서는 펀드투자자를 하고 있거나 펀드투자 경험이 있는 ‘펀드투자자’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분석대상을 성별 및 결혼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기혼 여성과 남성은 각각 200명, 247명이며, 미혼 여성과 남성은 각각 671명, 648명이다.

금융역량과 관련된 변수로 금융지식(펀드용어 숙지, 펀드 및 일반금융지식), 금융태도(가입기간, 기대수익률, 위험감내율, 투자실력에 대한 자기평가, 양호한 수익률에 대한 이유), 금융행동 결과(펀드의 실현수익률) 등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문항과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금융역량과 관련된 문항 및 측정방법  
Table 1. Questions related to financial capability

|   |
|---|
| (1) 금융지식  |
| - 펀드용어에 대한 숙지(Q116)<br>① 환매수수료, ② 판매수수료, ③ 펀드보수, ④ 클래스펀드, ⑤ 자산운용회사, ⑥ 펀드수익률, ⑦ 환매가격, ⑧ 환매소요기간, ⑨ 펀드 유형, ⑩ 운용보고서, ⑪ 채권 시가 평가, ⑫ 펀드 투자관련 세금, ⑬ 투자설명서, ⑭ 과세율/비과세여부, ⑮ 펀드결산 |
| - 펀드지식(Q118)<br>① 펀드는 편입 대상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br>② 펀드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상품  |

|   |
|---|
| ③ 모든 펀드는 동일한 기준가격을 적용<br>④ 세제혜택 상품을 제외하고는 펀드 수입에도 세금 부과<br>⑤ 펀드는 환매 신청 즉시 돈을 찾을 수 있다<br>⑥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br>⑦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는 예금자보호의 대상<br>⑧ 불입기간이 경과하면 펀드에서 추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br>⑨ 펀드는 거래하는 시간대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적용<br>⑩ 펀드를 환매할 때는 항상 환매 수수료를 내야한다<br>⑪ 투자 피해 분쟁조정기관은 금융감독원뿐이다   |
| - 일반금융지식(Q120)<br>①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 시 투자 위험 감소<br>② 투자위험이 커지면 기대수익률도 증가<br>③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현재 100원 > 미래 100원<br>④ 연 1회 4% 이자와 연 2회 2% 이자는 만기 시 수령액 동일<br>⑤ 물가상승이 기대되면 실질 이자율 감소<br>⑥ 일정금액 초과분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br>⑦ 주식시장 하락기에는 주식형 펀드 거치식이 적립식보다 유리<br>⑧ 시장 이자율 상승 시 채권 가격도 상승<br>⑨ 확정기여형 연금은 근로자가 연금 적립액을 운용하며 그 결과로 수령액 결정<br>⑩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br>⑪ KOSPI 지수 수익률은 주식 배당금을 포함하여 산출<br>⑫ 펀드투자 시 일회성 비용은 보수, 지속 발생 비용은 수수료<br>* (금융지식에 대한 측정방법)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중 선택<br>정답형은 '1'점, 오답형('모르겠다'까지 포함)은 '0'점으로 처리하여 전체 점수를 합산 |
| (2) 금융태도  |
| -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가입 기간(Q124)<br>- 목표가입기간 동안 기대수익률 (Q125)<br>- 목표 가입기간 동안 위험감내율 (Q126)<br>* (측정방법)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값을 그대로 사용  |
| - 다른 일반 투자자들과 비교해볼 때 본인의 투자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가(Q129)<br>* (측정방법) ① 상당히 미숙하다 ② 다소 미숙하다 ③ 보통 수준이다 ④ 잘 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한다 중에서 선택<br>본인의 실력을 높이 평가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과함.<br>즉 ①, ②, ③, ④, ⑤에 대한 응답을 각각 1, 2, 3, 4, 5점으로 처리  |
| - 최근 몇 달간 투자수익률이 꽤 좋았다고 가정할 경우 그 이유(실력 vs 운)(Q130)<br>* (측정방법) ① 본인 투자실력이 좋아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②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③ 투자실력도 좋았지만 운도 따라 주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에서 선택 ①, ②, ③에 대한 응답을 각각 1, 2, 3점으로 처리  |
| (3) 금융행동 결과   |
| - 펀드의 실현수익률(Q44)<br>* (측정방법)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값을 사용  |

## III. 실증분석 결과

### 1. 금융지식

성별 및 결혼여부에 따른 4개 그룹의 금융지식 차이는 표 2와 같다. 펀드용어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

해 기혼 여성과 남성은 15개 용어 중 각각 평균 4.5750개, 5.0566개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펀드지식 정답수도 각각 6.3950개, 6.1943개였다. 이들 평균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일반금융지식에 대한 정답 수는 기혼 여성과 남성이 각각 4.9700개, 5.5708개로 평균차이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경우 펀드용어 숙지, 펀드 및 일반금융 지식 모두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낮았으나, 펀드용어 숙지 및 펀드지식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일반금융지식의 정답 수는 각각 4.9700개, 5.4932개로 평균차이가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과 미혼남성의 경우, 펀드용어 숙지, 펀드지식, 일반금융지식 모두 평균적으로 미혼남성이 기혼여성보다 높았으며 10%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은 기혼남성, 미혼여성, 미혼남성보다 평균적으로 펀드용어 숙지, 펀드 및 일반금융 지식이 낮았으며 특히 일반금융지식에서 평균 차이가 두드러졌다.[6] 특히 기혼여성과 미혼남성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2. 금융지식에 대한 평균차이  
 Table 2. Mean-difference in financial knowledge

|                    | 표본 수 | 평균     | 표준편차   | t-검정       |
|--------------------|------|--------|--------|------------|
| (1) 펀드용어(15개) 숙지   |      |        |        |            |
| 패널 A: 기혼여성 vs 기혼남성 |      |        |        |            |
| 기혼여성               | 200  | 4.5750 | 0.1508 | -1.1662    |
| 기혼남성               | 247  | 5.0566 | 0.2702 |            |
| (2) 펀드지식(11개)      |      |        |        |            |
| 기혼여성               | 200  | 6.3950 | 0.1867 | 0.8209     |
| 기혼남성               | 247  | 6.1943 | 0.1501 |            |
| (3) 일반금융지식(12개)    |      |        |        |            |
| 기혼여성               | 200  | 4.9700 | 0.1693 | -2.6584*** |
| 기혼남성               | 247  | 5.5708 | 0.0773 |            |
| 패널 B: 기혼여성 vs 미혼여성 |      |        |        |            |
| (1) 펀드용어(15개) 숙지   |      |        |        |            |
| 기혼여성               | 200  | 4.5750 | 0.3151 | -0.8148    |
| 미혼여성               | 671  | 4.8673 | 0.1719 |            |
| (2) 펀드지식(11개)      |      |        |        |            |
| 기혼여성               | 200  | 6.3950 | 0.1867 | -0.7541    |
| 미혼여성               | 671  | 6.5439 | 0.0923 |            |
| (3) 일반금융지식(12개)    |      |        |        |            |
| 기혼여성               | 200  | 4.9700 | 0.1693 | -2.7168*** |
| 미혼여성               | 671  | 5.4932 | 0.0922 |            |
| 패널 C: 기혼여성 vs 미혼남성 |      |        |        |            |
| (1) 펀드용어(15개) 숙지   |      |        |        |            |

|                 |     |        |        |            |
|-----------------|-----|--------|--------|------------|
| 기혼여성            | 200 | 4.5750 | 0.3151 | -1.9576*   |
| 미혼남성            | 648 | 5.2746 | 0.1731 |            |
| (2) 펀드지식(11개)   |     |        |        |            |
| 기혼여성            | 200 | 6.3950 | 0.1867 | -1.9839*** |
| 미혼남성            | 648 | 6.7762 | 0.0898 |            |
| (3) 일반금융지식(12개) |     |        |        |            |
| 기혼여성            | 200 | 4.9700 | 0.1637 | -5.6528*** |
| 미혼남성            | 648 | 6.0277 | 0.0898 |            |

\*\*\*p<.01, \*\*p<.05, \*p<.10

## 2. 금융태도

성별 및 결혼여부에 따른 4개 그룹의 금융태도에 대한 평균차이 검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은 투자기간이 각각 2.4630년, 2.7437년으로 기혼남성이 길었으나 평균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기대수익률은 기혼여성이 연 36.4500%, 기혼남성이 연 32.8866%로 기혼여성이 더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손실감내율은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이 각각 연 14.2000%, 16.9149%로 기혼남성이 다소 높았으나 역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인의 투자실력 평가에서는 기혼여성이 2.0950점, 기혼남성이 2.4817점으로 기혼남성이 높았으며 이는 1%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투자수익률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혼여성이 2.1400으로 더 '운'때문으로 생각하는 반면 기혼남성은 실력으로 생각하는 경향(2.0931)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은 투자기간, 기대수익률, 손실감내율, 투자실력 평가, 수익률이 좋은 이유 등에서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본인의 투자실력평가에서만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둘째,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을 비교하면 기혼여성은 투자기간이 2.4630년인데 비해 미혼여성은 2.9323년으로 더 길었으며 이러한 평균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기대수익률은 기혼여성이 평균 36.4500%인데 비해 미혼여성은 29.6885%로 5% 유의수준에서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였다. 한편, 손실감내율은 기혼여성이 14.2000%인데 비해 미혼여성은 15.0372%로 더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인의 투자실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기혼여성은 2.0950점인데 비해 미혼여성은 2.2488점으로 평균 차이가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투자수익률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이 각각 2.1400, 2.1624로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간에는 손실감

내을을 제외한 투자기간, 기대수익률, 본인에 대한 투자 실력평가 등 3개 항목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의 금융태도는 기혼남성보다 미혼여성과 더 많은 항목에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과 미혼남성의 투자기간은 각각 2.4630년, 2.9796년으로 미혼남성이 투자기간이 길었으며 이러한 평균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기대수익률은 기혼여성과 미혼남성이 각각 연 36.4555%, 32.6234%이고, 손실감내율도 각각 연 14.2000%, 14.0817%로 기혼여성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인의 투자실력 평가에서는 기혼여성과 미혼남성이 각각 2.0950점, 2.4089점으로 미혼남성이 높았으며, 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투자수익률에 대한 이유에서는 기혼여성과 미혼남성이 각각 2.1400점, 2.1990점으로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과 미혼남성은 투자기간, 본인의 투자실력 평가에서만 유의하게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투자기간은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및 미혼남성 간 평균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기대수익률은 미혼여성하고만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투자실력평가에서는 남성 즉 기혼남성과 미혼남성과의 평균차이가 미혼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본인의 투자실력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손실감내율과 본인의 투자실력 평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금융태도에 대한 평균차이  
Table 3. Mean-difference in financial attitude

|                                    | 표본 수 | 평균      | 표준편차   | t- 검정      |
|------------------------------------|------|---------|--------|------------|
| 패널 A: 기혼여성 vs 기혼남성                 |      |         |        |            |
| (1) 투자기간(년)                        |      |         |        |            |
| 기혼여성                               | 200  | 2.4630  | 0.1132 | -1.4282    |
| 기혼남성                               | 247  | 2.7437  | 0.1512 |            |
| (2) 투자기간내 기대수익률(%)                 |      |         |        |            |
| 기혼여성                               | 200  | 36.4500 | 2.9539 | 0.9400     |
| 기혼남성                               | 247  | 32.8866 | 2.4319 |            |
| (3) 투자기간내 손실감내율(%)                 |      |         |        |            |
| 기혼여성                               | 200  | 14.2000 | 1.5256 | -1.3265    |
| 기혼남성                               | 247  | 16.9149 | 1.3660 |            |
| (4) 다른 일반 투자자들과 비교해볼 때 본인의 투자실력 평가 |      |         |        |            |
| 기혼여성                               | 200  | 2.0950  | 0.0591 | -4.7885*** |
| 기혼남성                               | 247  | 2.4817  | 0.0546 |            |

|                                     |     |         |        |            |
|-------------------------------------|-----|---------|--------|------------|
| (5) 투자수익률이 좋을 경우 그 이유 (실력 vs 운)     |     |         |        |            |
| 기혼여성                                | 200 | 2.1400  | 0.0394 | 0.8758     |
| 기혼남성                                | 247 | 2.0931  | 0.5661 |            |
| 패널 B: 기혼여성 vs 미혼여성                  |     |         |        |            |
| (1) 투자기간(년)                         |     |         |        |            |
| 기혼여성                                | 200 | 2.4630  | 0.1132 | -3.3936*** |
| 미혼여성                                | 671 | 2.9323  | 0.0675 |            |
| (2) 투자기간내 기대수익률(%)                  |     |         |        |            |
| 기혼여성                                | 200 | 36.4500 | 2.9539 | 2.4829**   |
| 미혼여성                                | 671 | 29.6885 | 1.1983 |            |
| (3) 투자기간내 손실감내율(%)                  |     |         |        |            |
| 기혼여성                                | 200 | 14.2000 | 1.5256 | -0.4845    |
| 미혼여성                                | 671 | 15.0372 | 0.8265 |            |
| (4) 다른 일반 투자자들과 비교해 볼 때 본인의 투자실력 평가 |     |         |        |            |
| 기혼여성                                | 200 | 2.0950  | 0.0591 | -2.2675**  |
| 미혼여성                                | 671 | 2.2488  | 0.0325 |            |
| (5) 투자수익률이 좋을 경우 그 이유 (실력 vs 운)     |     |         |        |            |
| 기혼여성                                | 200 | 2.1400  | 0.0394 | -0.4828    |
| 미혼여성                                | 671 | 2.1624  | 0.0224 |            |
| 패널 C: 기혼여성 vs 미혼남성                  |     |         |        |            |
| (1) 투자기간(년)                         |     |         |        |            |
| 기혼여성                                | 200 | 2.4630  | 0.1132 | -3.4312*** |
| 미혼남성                                | 648 | 2.9796  | 0.0759 |            |
| (2) 투자기간내 기대수익률(%)                  |     |         |        |            |
| 기혼여성                                | 200 | 36.4500 | 2.9539 | 0.9954     |
| 미혼남성                                | 648 | 32.6234 | 1.9310 |            |
| (3) 투자기간내 손실감내율(%)                  |     |         |        |            |
| 기혼여성                                | 200 | 14.2000 | 1.5256 | -0.0017    |
| 미혼남성                                | 648 | 14.2017 | 0.7382 |            |
| (4) 다른 일반 투자자들과 비교해 볼 때 본인의 투자실력 평가 |     |         |        |            |
| 기혼여성                                | 200 | 2.0950  | 0.0591 | -4.6171*** |
| 미혼남성                                | 648 | 2.4089  | 0.0330 |            |
| (5) 투자수익률이 좋을 경우 그 이유 (실력 vs 운)     |     |         |        |            |
| 기혼여성                                | 200 | 2.1400  | 0.0394 | -1.2401    |
| 미혼남성                                | 648 | 2.1990  | 0.0234 |            |

\*\*\*p<.01, \*\*p<.05, \*p<.10

### 3. 금융행동 결과

성별 및 결혼여부에 따른 4개그룹의 금융행동 결과 차이에 대한 검증은 표 4와 같다.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평균 펀드수익률은 각각 -0.7600%, 3.1621%로 차이가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평균은 각각 -0.7600%, 0.8345%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기혼여성과 미혼남성은 각각 -0.7600%, 2.3271%로 평균 차이가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의 펀드수익률이 가장 낮았으며, 미혼여성과는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기혼남성과 미혼남성)과는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금융행동결과에 대한 평균차이

Table 4. Mean-difference in the result of financial action

|                    | 표본 수 | 평균      | 표준편차   | t-검정      |
|--------------------|------|---------|--------|-----------|
| 패널 A: 기혼여성 vs 기혼남성 |      |         |        |           |
| 기혼여성               | 200  | -0.7600 | 1.2337 | -2.0456** |
| 기혼남성               | 247  | 3.1621  | 1.4816 |           |
| 패널 B: 기혼여성 vs 미혼여성 |      |         |        |           |
| 기혼여성               | 200  | -0.7600 | 1.2337 | -1.0149   |
| 미혼여성               | 671  | 0.8345  | 0.7749 |           |
| 패널 C: 기혼여성 vs 미혼남성 |      |         |        |           |
| 기혼여성               | 200  | -0.7600 | 1.2337 | -1.8486*  |
| 미혼남성               | 648  | 2.3271  | 0.8459 |           |

\*\*\*p<.01, \*\*p<.05, \*p<.10

#### IV. 결론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2016년 투자자서베이를 이용하여 펀드소비자를 대상으로 성별 및 결혼여부에 따라 금융역량을 금융지식(펀드용어 숙지, 펀드 및 일반금융 지식), 금융태도(투자기간, 기대수익률, 위험감내율, 투자실력에 대한 평가, 좋은 수익률의 이유), 금융행동의 결과(펀드의 실현수익률)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은 다른 그룹보다 금융지식(펀드용어, 펀드 및 일반금융지식)이 낮았다. 특히 미혼남성과는 차이가 컸다. 둘째, 금융태도에서 기혼여성은 투자기간이 가장 짧은 반면 기대수익률은 가장 높았다. 또한, 손실감내율은 가장 낮고 본인 실력에 대한 자기평가도 가장 낮았다. 셋째, 금융행동 결과를 비교해 보면 기혼여성의 펀드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기존 여성의 금융역량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성별 및 결혼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 간 금융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2016년 한해의 펀드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분석기간을 확대하여 금융역량의 변화 분석, 펀드소비자와 주식투자자와의 비교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J.H.Kim, and H.J.Choi, "The development of Consumer Financial competency measure".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4, No.3, pp.1-36, 2011.
- [2] OECD/INFE, "OECD/INFE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Competencies," 2016.
- [3] C. Choi, "A study on financial portfolios of Korean households",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4, No. 2, pp.219-224, 2018.
- [4] J.K.Son, Y.M. Kim, J. Yoo, " Studies of the effects of investor education on financial capability", Journal of Money & Finance, Vl.31, No.4 pp. 103-131.2017.
- [5] Korea Financial Investors Protection Foundation, Fund Investors Survey, 2016.
- [6] Y.G.Lee and S.S Kim, "Gender effect on financial literacy, risk tolerance, and financial inclusion",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 9, No.3, pp. 23-50, 2016.